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마치고

김 형 명 (주)한화/정보통신 대리

장 마의 긴 터널을 지나고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맞이하는 듯 하지만 미처 여름 여행을 떠나지 못한 이들은 이제 서늘한 바람을 타고 멋진 산속에 마음을 실어 보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지난 여름날 수재민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은 듯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닌 모습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이쯤에서 3주간 받아야 할 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회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지면서 필연 밝은 표정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한숨을 쉬면서 주위를 슬그머니 둘러보았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진지하기만 한 것이었다. 그래도 배움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기에 단 한가지의 얻어도 나만의 것을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지나온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또 한 주를 보내고 이제는 마지막주에 이르렀을 때는 그동안 배움을 같이했던 전국에서 모여든 동료와의 헤어짐

이 못내 아쉽기까지 했다.

이제 아쉬움은 그 다음이다.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추후 우리의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3주간의 교육 시간이라는 배움이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현장의 최종적인 목적인 “안전”이란 두 글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107기란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후배 동료를 만나게 된 것부터 각 개인에게는 유용한 양식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제 수료를 함에 있어 우리들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을 외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과 교육기간중 수고해 주신 협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